

코리아더커드, 올 매출 6천억... 中 시장 본격 공략

오리고기 생산·유통업체 코리아더커드는 지난 5월 13일 전남 장흥산업단지에 아시아 최대규모 오리고기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내년부터 해외시장을 본격 공략한다고 밝혔다. 코리아더커드 박영진 대표는 이날 서울플라자호텔에서 다슬 장흥공장 준공 계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오리업계 1위의 자신감과 연 매출 3000억원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축적된 오리 사육 노하우와 가공기술로 국내 오리업계 대표로 올 매출 6000억원을 달성해 국내 오리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더커드는 최근 전남 장흥산업 단지에 부지면적 2만평, 연 면적 1만평, 건축면적 약 9000여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오리 가공 공장을 준공했다. 하루 기준으로 7만2000수의 오리를 도압하고, 3만 6000수의 오리를 가공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모든 공정을 무균실(bioclean room) 방식으로 설계하고 가공설비를 100% 스테인레스로 구축했다. 박 대표는 “코리아더커드는 지난 30년간 축적된 사육 노하우와 가공기술로 국내 오리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장흥공장을 교두보 삼아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더커드는 오리 부화에서부터 사육·가공·포장까지 가능한 설비를 갖춘 (주)다슬과 오리고기 가공육을 전문으로 하는 (주)팜덕을 관계사로 두고 있다. 185개의 계열 농장과 전라도 고흥, 나주, 남원 등에 월 200만수를 생산할 수 있는 부화장을 보유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권 기자 2013. 05. 28

‘주원산 무항생제 훈제오리’특집전, NS홈쇼핑에서 실시

NS홈쇼핑이 때 이른 째똥터위로 몸보신을 위한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 6월 13일 ‘주원산 무항생제 훈제오리’특집전을 실시했다. 주원산 오리의 친환경 브랜드 자연록수에서 만든 ‘무항생제 훈제오리’는 무항생제 인증 농가에서 키운 국내산 오리만을 사용한다. 와인숙성과 참나무 훈제를 통해 오리 특유의 비린내가 없고, 슬라이스와 소포장으로 1인 가구도 먹기 편리하다. NS홈쇼핑 2013 상반기 히트상품으로도 선정되며, ‘상반기 최강전’ 특집 기념으로 13일 단 하루만 ‘무항생제 주원산 훈제오리(180g)’ 18팩에 200g 1팩 최다 구성을 5만8900원에 판매했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2013. 06. 12

주원산오리, 롯데홈쇼핑 상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

지난 6월 10일 롯데홈쇼핑이 올 상반기(1월 1일~5월 31일) 주문 수량을 기준으로 히트상품을 집계한 결과 주원산오리가 전체 7위를 차지했다. 화장품, 의류, 잡화 등을 제외하면 식품으로는 1위이다. 대량 판매와 유통단계를 줄여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 위생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원산오리가 전체 10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2013. 06. 10 기사 발췌

농협사료, 축사 음수관리 컨설팅 실시

농협사료(대표이사 이환원)는 돼지·닭 등 중소가축 사육농가의 축사 음수시설 소독서비스 및 음수 관리 컨설팅을 8월까지 펼친다. 농협사료는 이를 위해 각 지사 특판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독 시연회와 교육을 실시했으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를 마치고 전용 세척제도 확보해 놓았다. 농협사료의 관계자는 “여름철 가축 음수 관리를 잘못하면 대장균 및 일반세균 증식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서비스를 제공해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2013. 06. 12

천하제일사료, 천안연암대학과 산학협력 협약

천하제일사료(총괄사장 윤하운)는 지난 5월 23일 천안연암대학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하였다.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을 통한 축종별 사양시험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천안연암대학의 축산전문 교육시설과 우수 교수진 및 천하제일사료 중앙 연구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국내 축산 농가와 축산 2세 교육은 물론 천하제일사료의



영업 인력과 해외사업부 축산 인력의 교육을 통한 축산전문 인력 양성 등 산학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안연암대학생의 현장 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산학협력을 통하여 미래 축산인재 육성에 힘쓰고 동시에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 외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친선교류와 장학사업, 학술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팜스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사료판매 월 8만톤 돌파



팜스코가 사료사업 40여년 역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인 월 8만 1000여톤 판매라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또 안성에 위치한 중부공장은 품질 위주의 생산을 통해 월 4만 6200 여톤이라는 실적을 달성해 사료협회 기준 최고 생산량을 기록했다. 중부공장과 각 사업장에서는 월간 최대 판매실적 기념식을 개최하고, 8만톤 출고농장과 출고차량에게 각각 감사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권천년

사료사업본부장은 이날 축하행사에서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고객의 아픔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장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고객성공이 곧 우리의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팜스코 사료를 사용해 온 고객 농장의 성공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3 to 1 activity campaign’을 통해 농장의 생산성 향상 노력과 경영 개선 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고객농장과 동반성장하는 팜스코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전했다.